

◇ 서평 ◇ ..... 한국사상과 불교, 박성배 지음, 해안, 3만원

### 종교에 대한 ‘學問’, 그 치열함의 모범

박성배 교수가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에 교수로 재직하다가 느꼈듯이 미국 유학길에 오르며 아예 거기에 눌러앉아 활동해온지가 벌써 40년이 되었다. 버클리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스토니브룩 뉴욕주립대학교 종교학과에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학과와 한국학연구소를 설립하여 키워왔다. 한편으로, 방법론은 일본과 유럽의 불교학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주로 인도와 중국, 일본, 티베트 불교 연구에 치중해온 미국 불교학계에 한국불교의 이슈들을 소개하는 데 막중한 기여를 해왔다.

하지만 한국에는 이른바 돈쟁이(頓漸論爭)의 와중에 국내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들 이외에는 그의 학문이 중경 학자들 사이에는 좀 알려지지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아쉬웠다. 근래에 박 교수의 글들이 한국에서도 속속 출판되고 있어서 그 아쉬움을 좀 덜 수 있게 되었다.

철학과의 한 동료 교수가 이런 푸념을 하는 것을 들었다. 요즘에는 철학을 ‘하는’ 철학자가 아주 드물고 대개는 철학에 ‘대해’ 연구할 뿐이라는 푸념이다. 칸트니 헤겔이니 하이데거니 하는 서양의 철학자들, 또는 공자나 맹자, 주자, 왕양명 등 동양의 철학자들이 남긴 글을 통해 그네들의 철학에 대해서 공부하느라 바쁘니, 철학을 한다면서 사실은 철학사를 연구하고 있을 뿐이라는 얘기이다. 학생들이 제출하는 글에 학문(學問)을 학문(學問)이라고 잘못 쓰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는 것도 그 푸념과 겹쳐서 새삼스럽게 씁쓸함을 더해준다. 철학뿐 아니라 어느 분야에서나 학문(學問)보다는 학문(學文)이 대세다. 심지어 그들을 구별하는 감각조차 희미해져, 학문(學文)을 할 뿐이면서도 학문(學問)을 한다고 착각한다. 학생들의 그런 실수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그런 현실을 반영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순자(荀子)를 비롯해서 옛 문헌에도 가끔 학문(學問)이라는 말이 나오기는 하지만, 우리가 요즘 쓰는 그 말은 근대에 서양의 개념들과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의 개념들을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는 와중에 탄생했을 터이다. 학문에 상응하는 서양 개념 중에 근원적인 것으로는 studium이라는 라틴어를 꼽을 수 있겠다. 영어의 study도 거기에서 나온 말이다. 간절함, 부지런함, 추구함 등이 그 어원적인 의미라고 하니 한자문화권의 學 개념과 근본적으로 상통한다. 즉 학문의 요체는 간절한 마음을 제기하고 부지런히 그 답을 추구하는 데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읽을 얻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나아가 학문을 하는 당사자 자체가

그 사람 됨됨이와 삶의 이상적인 변화를 이루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점이다. 그런 학문(學問)이 쇠퇴하고 학문(學文)만이 유행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세속학문의 에토스 때문일 것이다. 이른바 객관성을 급과속으로 삼는 과학주의(scientism), 역사주의(historicism)의 풍토가 학문(學問)보다는 학문(學文)을 하게 만들었다. 과학주의, 역사주의에 대한 반성은 진즉부터 치열하게 이루어져왔지만, 그것만으로는 이미 강력하게 진행되어온 추세가 되돌려지지 않았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지만, 넓은 의미에서 과학이 학문 방법론의 주종이 되었고 과학에서는 학문과 학자의 사람 됨됨이가 별개이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적어도 인문학만큼은 학문(學文)으로 환원되어버려서는 곤란하다. 근래에 인문학의 위기에 관한 담론이 왕성하고 여러 가지 진단이 제시되고 있는데, 인문학이 학문(學文)이 되어버린 것이 그 위기의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인문학이라고 해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위에 언급했듯이 인문학의 핵이라 할 수 있는 철학부 터가 그렇게 심란한 사정에 처해있고 특히 불교학 또한 같은 사정인 와중에, 박성배 교수의 이 글들은 단순히 글을 다루는 기계적인 학술논문 이상의 의미로 다가온다. 그 논문들도 주제는 원효, 지눌, 율곡, 퇴계, 성철, 박종홍 등등 언뜻 보면 대개 “철학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철학사에 해당하는 주제들을 가지고 역시 단순히 학문적(學文的)으로 논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그 논문들 전편에 걸쳐서 그의 치열한 학문적(學問的)인 추구가 읽힌다. 바로 그 점 때문에 평자는 박교수의 논문들을 학생들에게 많이 읽힌다. 특히 종교학도들은 종교의 탐욕적 이상을 세속학문의 방법과 언어로 의미 있게 이야기해야 하는 까다로운 과제와 씨름한다. 그 일을 학문(學文)으로 손쉽게 처리해버리려 한다면 그네들의 논문에서 정작 종교는 죽어버린다. 종교를 분해한 시체에 대한 이야기가 될 뿐이다. 이 책에 학부시절의 것부터 최근 것까지 모아놓은 박성배 교수의 논문들은 “종교에 대한 학문”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물음을 안고 사는 그네들에게 하나의 좋은 지침이 된다. 무엇보다도, 학문(學文)으로 도피하지 말고 치열하고 간절하게 대드는 것이 학문(學問)의 생명임을 배울 수 있다.



박성배 교수가 성철 스님 회상에서 수행하던 1967년 해안사에서 하안거를 기념해 찍은 사진. 뒤에서 두번째줄 왼쪽 두번째가 박성배 교수다. 사진제공=해안출판사

윤원철 ·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 ‘천도법문’은 영가보다 산 사람에게 ‘명약’

무비 스님 ‘일곱번의 작별인사’, 49재 천도재 법어 묶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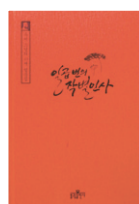
49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등 노인 정책이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고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장묘사업체들의 홍보활동도 뜨겁다. 거기에 자살한 유명 연예인들의 49재가 언론에 자주 거론되고 있다. 노무현 前 대통령의 서거 이후 진영 정치원은 장례일부터 49재가 지난 시점까지 연일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전국 사찰에서 노 前 대통령의 49재를 봉행하여 49재라는 단어를 못 들어 본 국민이 없을 정도다. 그러나 49재가 무엇인지 왜 행하는 것인지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불자들조차도 49재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저 영가의 극락왕생을 위해 남은 자들이 하는 의례라는 정도로 이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49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 사진은 노무현 前 대통령의 49재 모듬.

“본래 49재의 의미는 영가가 못 다한 복을 지어 드리고, 나아가 참으로 진정한 영가의 실상이 무엇인지 일깨워 드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금일 영가를 보내 드리는 마지막 시간이지만 영가의 입장에서 보면 비로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첫 문입니다.”

우리 시대의 대강백 무비스님은 49재를 영가와 남은 사람들이 함께



일구는 공덕의 자리라고 말한다. 금생의 인연을 마치고 새로운 인연을 찾아가는 영가에게 보다 밝은 길을 닦아 주고 그러한 공덕은 남은 자들에게도 회향된다 것이다.

천도재에서 한 법어이다. 영가천도 법어는 ‘법어 중의 법어’다. 불교의 생사관과 우주관 인생관을 가장 깊이 있게 응축한 내용이다. 49재나 천도재에서 법어를 들은 영가는 이승의 인연을 마치고 다음생의 인연을 받지 않은 상태다.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최상의 법문을 듣고 깨우침을 얻어 최선의 인연을 만나라는 것이 천도법문의 주류다. 생사가 덧없으며 홀로 밝은 한 마음이 진정한 존재임을 깨우치기 위해 <금강경>의 공사상을 자주 인용하고 <열반경>이나 선사들의 계송 등이 인용된다.

### 세상의 갈등 푸는 ‘따뜻한 한 마디’

신규탁 교수, 칼럼집 ‘때 묻은 옷을 걸면서’ 펴내

세상의 갈등을 없애고 평온을 유지하는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 종교다. 그런데 그 지혜를 가르치기보다는 교단의 안위와 성직자 혹은 수행자 등 교단 구성원간의 갈등이 세상 속으로 불거져 나오기 일쑤다. 세상을 가르치는 종교가 세상 속에서 혼란의 당사자가 되는 일이 비일비재다.

그래서 ‘따뜻한 한 마디’가 갖는 공명은 크다. 종교란 교단의 것이 아니고 보편적인 삶의 동반자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동시대인들에게 공감할 불러일으키는 ‘한 마디’를 던지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깊은 사유와 냉철한 분석 그리고 대안과 해답을 도출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때 묻은 옷을 걸면서>는 연세대 철학과 신규탁 교수가 불교계의 여러 매체들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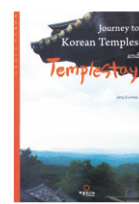
고했던 글들을 묶은 것이다. 그의 깊은 사유와 차가운 현실인식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눈길이 한권의 책에 고스란히 담겼다.

불선사 조실 월운 스님이 신 교수를 유발제자로 받아들여면서 내린 ‘계문(偈文)’에 “때 묻은 옷을 세상에 걸어두고 그들과 어울려 중생의 고민을 덜어 주거라”라는 대목이 나온다. 그것이 곧 책의 제목으로 응용됐다. 신 교수가 재가불자로 철학자로서의 길을 걸으며 늘 곧추세운 마음의 뜻대가 어떤 것인지 이 칼럼집을 보면 알 수 있다.

정우서적 | 1만원  
임연태 기자

### 외국인을 위한 한국불교 안내서

영문판 ‘Journey to...’



하원 미디어가 외국인들에게 우리 문화를 알리기 위해 기획한 ‘코리아 스토리 시리즈’ 네 번째 책이다. 모두 5부로 나눠져 있다. 제1부는 중국을 거쳐 들어온 한국불교의 발전 과정을 설명하고 있으며 제2부에서는 한국 불교와 사찰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제3부는 사찰 여행을 통해 느낀 저자의 의견들이 짚점의 미학을 감상하는 방법과 함께 소개되고 있다. 제4장과 5장에서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는 사찰에 대한 정보와 외국인들의 대표적인 궁금증을 담았다. 장영희 지음 | 하원 미디어 | 1만2000원

들려주는 영가천도법어. 사실, 살아 있는 사람들이 더 친절하게 가슴에 새겨야 할 생사해탈의 ‘명약’이다. 지금 살아 있는 사람들 결국엔 영가이기 때문이다. 불광출판사 | 9800원  
임연태 기자

###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일기일회	법정	문학의 숲
2	아름다운 마무리	법정	문학의 숲
3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상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4	인과경	현담	선
5	지금 그것이 어디에 가 있나	곽은구	불광출판사
6	세어본 스님 존재한다	월호	운주사
7	자리산 스님들의 문답하는 수행이야기	천천, 현현	불광출판사
8	쉬고 또 쉬고	무어	새로운 사람
9	삼천년의 생을 지나 당신과 내가 만났습니다	성전	마음의 숲
10	행복하기 행복하기	법륜	정토

\*출처: 운주사 제공 (02)3672-7181

www.buddhabook.co.kr  
운주사 02)3672-7181~5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초발심자경문

이 초발심자경문은 한문을 세기는 힘인 문리를 터득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러 의역하지 않고 직역하였다. 대원 선사님의 살아있는 수행지침도 실려 있다.

전강 대선사 법어집 달다

이번 달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서울, 부산, 광주 법회는 전강의식 및 사막화 방지 사단법인 청림기념 행사로 인해 포천의 국제 정맥선원 대웅전에서 둘째주 일요일인 8월 9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02-3494-2460 www.zenparadise.com

사찰 건축의 얼굴 문 “문”

확! 바뀌드립니다

빛살문, 사살 꽃살문, 육살 꽃살문

홍승으로 만들어집니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조각이 섬세합니다. 문화유산이 되도록 견고합니다.

- 문짝의 종류: 사살 꽃살문, 육살 꽃살문, 빛살문, 사찰왕문, 금강역사문, 33관음문, 16나한문, 등자문, 조각문 주문제작
- 1,250나한 그림책 1권 - 판매금액 180,000원
- 입금계좌: 농협 174392-56-064352 (예금주: 이에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178-1 성불사내
- 불사상담문의 041)567-2600 / 011-421-5337

인터넷 주소창에 **고건축** 검색어 삽입

www.ehanok.com

목조 · PC고건축 · 사찰문 · 나한 문화재수리가능보유등록 제 1853호

한국고건축 금호 임영창 합창

칠포 대원사 성지 순례지

용의크기: 넓이 2미터, 높이 2.5미터, 길이 1080미터

사바세계 일체중생은 신비의 용을 친견 함으로써 번뇌 망상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일체중생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관세음보살님 42수 진언의 소원 성취를 증득하실 길잡이 바로 칠포 대원사 성지순례이십니다. (칠포 해수욕장 15분거리)

신비의 상징, 길상의 상징, 불법을 수호하는 신용, 대한민국 최초로 거대한 용을 조성하였습니다. 용의 뱃속에 천불전, 일천불 부처님이 타고 계시며 용의 몸통속에 7만 7천 부처님을 봉안 할 예정입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禪)선종 총본산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리 607번지  
전화: 054)261-7777 / 팩스: 054)261-6119

핀란드에서 온 100% 야생 블루베리!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기능성 색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을 폭격하던 영국공군 조종사들이 야간비행 전에 블루베리를 주식으로 먹었습니다. 이후 물체식별이 향상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블루베리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다량의 안토시아닌 덕분에 블루베리는 우리몸의 젊음을 지켜주는 과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할인 판매

블루베리 파우더 -35,000원 => 32,000원  
블루베리 주스 -46,000원 => 42,000원  
크랜베리 주스 -46,000원 => 42,000원

YADANBOPSEOK 구입문의: 010-5318-0704  
www.01053180704.com